

「2003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 여론조사」에 즈음하여

현지통신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 현장에서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연구원의 조사업무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협조해 주시는 현지통신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 여론조사」를 올해도 실시하게 되어 설문지를 우송합니다.

본 조사는 농정연구에 매우 귀중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신 후에 2003년 12월 14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반송봉투에 넣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응답은 저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온라인 상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 기간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지통신원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李 貞 煥

통신원번호

--	--	--	--	--

(봉투에 기재된 통신원번호 다섯자리 기재)

■ 온라인으로 응답하실 분은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

1) 귀하는 5년전에 비해 올해(2003년)의 '농촌 생활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x1)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마찬가지로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2) 작년(2002년)과 비교해 올해(2003년) '농촌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x2)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마찬가지로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3) 올해(2003년)와 비교해서 5년후 '농촌생활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x3)

- ①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② 현재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③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다

4) 도시와 비교해서는 5년후 농촌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x4)

- ①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② 도시만큼 살게 될 것이다

- ③ 도시보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 5), 6)번 문제 관련

< 보 기 >

- | | | | | |
|------------|-------------------|--------------------------|-----------------|----------|
| ① 농산물 가격 | ② 추곡수매 | ③ 영농자금·농가부채 | ④ 농산물 수입개방 | ⑤ 농촌지역개발 |
| ⑥ 농촌인력 | ⑦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 | | ⑧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 |
| ⑨ 영농시설 현대화 | | ⑩ 농지문제(매매,가격,진흥지역,임대차 등) | | ⑪ 기타 |

- 5) 농사와 관련해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위 보기에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x5) (x6)
- 6)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위 보기에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x7) (x8)
- 7) 올해와 비교해 내년(2004년) ‘농업 경영여건’은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x9)
①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② 올해와 마찬가지로 ③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 8) 귀하는 현재 농촌 생활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x10)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 9) (문 8에서 ④⑤번에 답하신 분만)
귀하는 농촌 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x11)
①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 열악 ② 자녀 교육 여건 열악
③ 체육·보건 의료 시설 등 복지시설 미흡 ④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
⑤ 기타 ()
- 10)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것에 대해 직업으로써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x12)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 11) (문 10에서 ④⑤번에 답하신 분만)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x13)
①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소득 보장 미흡) ②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③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④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 불안
⑤ 농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좋지 않다 ⑥ 기타 ()
- 12) 귀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x14)
① 유리하다 ② 비슷하다 ③ 불리하다 ④ 본인 하기에 달렸다 ⑤ 모르겠다
- 13)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생활과 비교해 볼 때, 귀하는 현재의 농촌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15)
① 도시보다 매우 못산다 ② 도시보다 못사는 편이다 ③ 비슷하다
④ 도시보다 잘 사는 편이다 ⑤ 도시보다 매우 잘 산다

14) 귀하는 장래에 도시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x16)

- ① 꼭 도시에서 살고 싶다 ② 기회가 오면 도시에서 살고 싶다
- ③ 아직 모르겠다 ④ 별로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
- ⑤ 전혀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

■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15)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결과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x17)

- ① 우리 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하여 농업이 발전할 것이다.
- ② 커다란 영향없이 현재 수준 정도의 농업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국제경쟁력이 낮아 우리 농업은 크게 쇠퇴할 것이다.
- ④ 잘 모르겠다.

16) 우리나라 식량(곡물)자급률은 1970년에 80%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02년 말 현재 30% 수준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18)

- ①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더 높여야 한다
- ②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면 된다
- ③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식량자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 ④ 잘 모르겠다

17) 귀하는 농업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19)

- ① 농업은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② 농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 ③ 농업은 환경을 보전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④ 잘 모르겠다.

18) 농업부문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이 중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x20) (x21)

- ① 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 국토의 균형발전 ③ 자연환경의 보전
- ④ 전통문화의 계승 ⑤ 관광 및 휴식의 장소 ⑥ 전원생활의 장소
- ⑦ 기타(적을 것:)

19) 농산물 시장개방과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역할 중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x22) (x23)

- ① 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 국토의 균형발전 ③ 자연환경의 보전
- ④ 전통문화의 계승 ⑤ 관광 및 휴식의 장소 ⑥ 전원생활의 장소
- ⑦ 기타(적을 것:)

20) 귀하는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앞으로 농업 및 농촌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x24)

- 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한다
- ②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같은 공익 및 다원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한다
- ③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공익 및 다원적 가치기능도 함께 중시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21) 최근 들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소득 작목이 축소되는 원인으로 농산물 수입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25)

- ① 국내산 보다 값싼 농산물은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농산물은 가능한 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과 같은 기본식량은 국내에서 생산 자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잘 모르겠다

22) 귀하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x26)

- ①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 ②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총소득 증대
- ③ 고품질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
- ④ 브랜드화 등 유통 및 마케팅 혁신
- ⑤ 기타(적을 것)

■ 농정현안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 및 요구

23) 귀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x27)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불만이다
- ⑤ 매우 불만이다

24) 참여정부가 국제농업협상(WTO/DDA, FTA), 쌀정책, 농가부채, 협동조합개혁, 농가소득 안정 등 농정현안을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x28)

- ① 매우 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② 비교적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 ③ 잘 못할 것으로 예상돼 기대도 크지 않다
- ④ 매우 잘 못할 것으로 예상돼 기대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르겠다

2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농업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x29) (x30)

- 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 ② WTO 및 FTA 등 농업협상 대응
- ③ 한-칠레 FTA 농업 피해대책 마련
- ④ 금리 인하 등 농가부채 경감 방안 마련
- ⑤ 직불제 확대 등 소득보전 대책 마련
- ⑥ 생산조정제 시행 등 쌀산업 구조조정
- ⑦ 협동조합 개혁 추진
- ⑧ 기타 ()

26) 정부가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x31) (x32)

- ① 강력한 농업 구조조정
- ②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
- ③ 농업 기반시설 확충 투융자 확대
- ④ 쾌적한 농촌 건설을 위한 투융자 확대
- ⑤ 가격과 품질경쟁력 확보를 유통개혁
- ⑥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⑦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 ⑧ 농촌 생활개선과 복지대책 강화
- ⑨ 기타 ()

☞ 27~28번 문제 관련

정부는 지난 11월11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해 농업은 지속가능한 첨단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을 실현하며, 농촌은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가꾼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27)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33)

- ① 농촌발전에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② 영세 소농을 농업에서 몰아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 ③ 잘 모르겠다

28) 귀하는 농업에 대한 투융자가 생산성 증대와 소득보장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복지·환경 등 살만한 ‘농촌’ 건설 중 어디에 중점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x34)

- ①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지원해야
- ② 쾌적한 농촌건설에 중점 지원해야
- ③ 같은 비중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④ 기타 ()

29) 정부는 한-칠레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지원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기금(7년간 8,000억원 규모) 설치 등 농어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이 칠레와의 FTA 체결에 따른 예상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x35)

- ① 한-칠레 FTA에 대한 대책으로는 충분하다
- ② 농어가 지원에 대체로 효과적일 것이다
- ③ 다소 미흡하지만 정부재정의 한계 등을 감안시 최소한의 대책은 될 것으로 본다
- ④ 매우 미흡하며 농어가 피해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30) 귀하는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 쌀 재협상, FTA(자유무역협정)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업개방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할 계획입니까?(x36)

- ① 대체작목 개발 등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 ② 농외소득 확충을 위한 투자 등 대안 마련
- ③ 농사 포기 후 전직을 위한 준비
- ④ 개방 진행 상황이나 정부의 대책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계획
- ⑤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계획 없다
- ⑥ 기타 ()

31) 귀하는 농업개방과 농가부채 등 주요 농정 현안의 해결을 위해 농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개방문제에는 농업계의 유연한 입장을 얻어내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x37)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32) (문 31에서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대타협 주장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x38)

- ①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
② 개방이 급속히 확대돼 농업·농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③ 기타 ()

☞ 33번 문제 예시

올해 쌀 생산량이 태풍과 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23년만에 최저 수준인 3,091만섬에 그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고량이 충분하고 MMA 물량까지 감안하면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생산조정제 등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3) 귀하는 쌀 생산 감소와 수급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39)

- ① 쌀 개방 등에 대비해 감산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② 수급상황이 좋아질때까지 감산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③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계획부터 제시해야 한다
④ 기타 ()

34) 귀하는 내년(2004년) 쌀 재배면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x40)

- ① 축소할 계획이다 ②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③ 확대할 계획이다 ④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35) 귀하는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혁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x41)

-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② 중앙회 기능 회원조합으로 대폭 이관
③ 품목별협동조합 활성화 ④ 지도경제사업 활성화
⑤ 부실조합 정리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⑥ 협동조합직원들의 의식개혁
⑦ 기타 ()

36) 협동조합 개혁문제 중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42)

- ① 가능한 빨리해야 한다 ② 시기 상조다 ③ 분리할 필요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농지규제 완화 등 농지제도 변화에 대한 의식

37) 귀하는 농사를 그만두게 되면 소유농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x43)

- ① 농사짓는 자식(후계자)에게 물려주겠다
 ②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③ 매각하겠다 ④ 임대 또는 영농 대행하겠다 ⑤ 기타 ()

☞ 38~40번 문제 관련

농업진흥지역의 타용도 전환 허용 등 농지제도 개편을 통해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도시자본의 농촌 유치를 촉진해 도-농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정부도 농지 소유제한 및 이용규제의 완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농지은행 도입 등 농지제도 개혁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38)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44)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39) (문 37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만)

농지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x45)

- ① 농촌투자 활성화로 도-농 균형발전 ②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창출
 ③ 농촌지역 땅값 상승으로 재산 증식 ④ 도시민 농촌 이주와 귀농 확산
 ⑤ 기타 ()

40) (문 37에서 ②번에 응답하신 분만)

농지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x46)

- ① 농촌지역 땅투기 조장 ② 농촌지역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③ 도시근교와 지방농촌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
 ④ 탈농 가속화로 농업·농촌 공동화 초래 ⑤ 기타 ()

■ 농촌 복지에 대한 의식 및 요구

41) 귀하는 현재 정부에서 실시중인 농촌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x47)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이다 ⑤ 매우 불만족이다

42) 귀하가 살고계신 지역(시·군, 읍·면)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복지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x48)

- ① 저소득층 복지 ② 노인 복지 ③ 장애인 복지 ④ 영유아 복지
 ⑤ 아동/청소년 복지 ⑥ 여성 복지 ⑦ 기타 ()

43) 귀하가 살고계신 지역(시·군, 읍·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화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x49)

- ① 공공도서관 ② 공연장 ③ 박물관/미술관 ④ 영화관 ⑤ 청소년 수련시설
⑥ 경로당 ⑦ 군·구민회관/복지회관 ⑧ 기타 ()

44) 농촌지역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 순위별로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1순위: (x50) 2순위: (x51)

- ① 방문보건사업 강화 ② 농촌에 병원 확충 ③ 보건소/지소/진료소 시설 확충
④ 응급진료체계 정비 ⑤ 물리치료 강화 ⑥ 한방진료 강화
⑦ 의료비 지원 ⑧ 야간진료체계 정비 ⑨ 공중 의료시설 의료인력 확충
⑩ 기타 ()

45) 농촌지역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별로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1순위: (x52) 2순위: (x53)

- 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② 농촌학교 교육시설 지원 ③ 우수교원 배치
④ 특기 적성교육 다양화 ⑤ 통학지원(셔틀버스운행) ⑥ 야간진료체계 정비
⑦ 기타 ()

46) 귀댁에서는 노후 대책을 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x54)

- ① 저축 ②보험 ③ 농지매입 또는 임대 ④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⑤ 개인연금(은행, 보험회사 등 가입) ⑥ 각종 계 ⑦ 주택구입
⑧ 계속 일을(농사) 한다 ⑨ 자식에게 의존 ⑩ 기타 () ⑨ 아무 대책 없다

47) 귀하는 노후를 누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x55)

- ①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② 자녀 및 가족들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③ 본인과 자녀, 가족들이 같이 마련해야 한다
④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⑤ 기타 () ⑥ 잘 모르겠다

48) 귀하의 현재 노후는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x56)

- ①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② 자녀 및 가족들이 준비해 주고 있다
③ 본인과 자녀, 가족들이 같이 준비하고 있다
④ 사회보장제도에 기대하고 있다 ⑤ 아무런 준비도 기대도 없다
⑥ 기타 ()

49. 귀하의 현재 노후대책은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x57)

- ① 매우 불충분 ② 약간 불충분 ③ 보통 ④ 충분한 편 ⑤ 매우 충분함

■ 현지통신원 개인 정보

A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x58_ 道, 또는 광역시

A2>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x59)

- ① 평야지대 ② 산간지대 ③ 준산간지대 ④ 도시근교

A3> 귀하의 연령은 올해 몇세입니까? (만 x60 세)

A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x61)

- ① 무학 ② 한학 ③ 국졸 ④ 중졸 ⑤ 고졸 ⑥ 대졸(퇴)이상

A5> 귀하의 연평균 소득(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 중 임차료·비료·농약대 등 비용은 제외하되, 생활비는 포함)은 얼마나 되십니까? (x62)

- ① 1천만원 미만 ② 1천만원~2천만원미만 ③ 2천만원~3천만원미만
④ 3천만원~4천만원미만 ⑤ 4천만원~5천만원미만 ⑥ 5천만원 이상

A6> 귀하의 영농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x63)

- ① 10년 미만 ② 10~20년 미만 ③ 20년 이상

A7> 귀하의 전체 경작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x64)

(소유 및 임차농지는 포함하되 임대농지는 제외)

- ① 없다 ② 1,500평 미만 ③ 1,500~3,000평 미만 ④ 3,000~4,500평 미만
⑤ 4,500~6,000평 미만 ⑥ 6,000~9,000평 미만 ⑦ 9,000평 이상

A8>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무엇입니까? (x65)

-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

A9> 귀하의 성함과 홈페이지, E-mail,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 성 함: _____x66_____

▪ 홈페이지: _____x67_____

▪ E-mail: _____x68_____

▪ 휴대폰: _____x69_____

* 이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농업정책 연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그외 개인 신상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타 의견란이나 별지를 이용해 적어 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의견

◆ 안내 말씀

- *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은 동봉하는 반송봉투에 넣어 보내 주시거나, 저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rei.re.kr)를 찾아 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온라인 상으로도 설문에 응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12월 14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 올 한해 동안 조사에 응답하신 사례금은 12월 말에 이번 설문에 대한 응답까지 합산하여 보내드리고 있으니 꼭 빠른 시일내에 기입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 내용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은 김동원 (02-3299-4227), 박혜진 (02-3299-4228)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